

토기로 본 고대사회의 변화

최정아 | 102호 신석기실 | 18:00~18:30

박물관을 둘러보면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만들거나 사용한 수많은 전시품을 볼 수 있습니다. 반짝이는 금귀걸이와 금관, 다양한 색상의 구슬, 세밀하게 그려진 그림 등 화려하고 아름다운 유물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박물관에 가장 많은 유물은 무엇일까요? 아마 토기일 것입니다. 토기란 점토를 물에 개어 모양을 만든 후 불에 구워 만든 그릇입니다. 제작 방법에 따라 도기·자기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우리나라는 유약을 바른 자기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토기라고 부릅니다.

가장 많이 발견(발굴)되는 유물인 토기는 상대적으로 표면 장식이나 형태가 다채롭지 못하고, 깨진 것도 많아 비교적 관람객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자에게 토기는 과거를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토기 연구는 다른 유물에 비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토기가 중요한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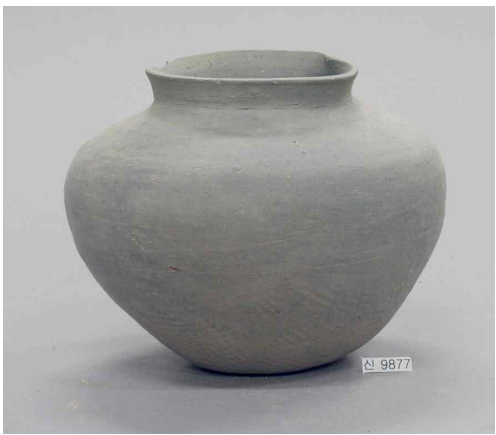

토기는 과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토기를 관찰·분석하여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고, 어떻게 빚어졌으며, 어떤 환경에서 구워졌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토기 내부에 남겨진 찌꺼기를 분석하여 무엇이 담겨졌는지,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토기의 형태나 무늬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당시의 사회모습을 추론하는 단서가 됩니다. 고고학에서 토기는 편년의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과학적 분석이 발달하지 않아 유물의 절대연대를 알 수 없었을 때에는 토기를 이용하여 상대적인 선후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모여 토기 변화를 바탕으로 한 편년 체계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다시 발굴 조사한 유적의 시기를 추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집자리를 조사하던 중 바닥이 뽕족하고 입이 넓으며 표면에 빗살무늬가 그려진 토기가 발굴된다면, 이것은 신석기시대에 제작된 빗살무늬토기이기 때문에 신석기시대의 유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기는 집단이나 사회, 국가 등을 구분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같은 시기에 존재하는 고대국가였으나, 사용하던 토기의 종류와 형태·제작방법 등이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토기의 출토 양상을 통해 국가별 영역이나

교류 양상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에는 토기에 대한 공통적인 믿음이 깔려있습니다. 토기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생활도구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물질자료 중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나 편향된 사건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과거를 반영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비교적 제작이 쉽기 때문에 사회의 발달이나 집단의 변화, 문화 변동 등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즉 토기의 변화는 단순히 제작자의 심리적 상황이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과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p>그림 1.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시대, 서울 암사동)</p>	<p>그림 2. 짧은 목 항아리 (백제, 서울 암사동)</p>
	
<p>그림 3. 몸이 긴 항아리(고구려)</p>	<p>그림 4. 말무늬 굽다리 긴 목 항아리(신라)</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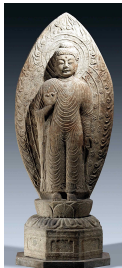
감산사 아미타여래상과 미륵보살상

최선주 | 301호 불교조각실 | 18:00~18:30

경주 외동읍 감산사터에서 발견된 석조아미타여래입상과 미륵보살입상은 광배 뒷면에 제작시기를 포함한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어서 통일신라 8세기 전기 불상 연구의 기준작으로 여겨지는 한 세트의 작품입니(그림1, 2). 글은 중아찬(重阿飡) 김지성(金志誠 또는 金志全)이 719년(성덕왕18)에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아미타상과 미륵상을 만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륵상의 명문은 상의 조성동기, 김지성의 생애, 발원, 어머니의 장례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비해, 아미타상의 명문은 앞부분에 조성동기가 없는 대신 명문을 새긴 관여자들, 아버지의 장례식, 김지성의 사망 사실이 추가되어 약간 차이를 보입니다.

감산사 상들은 비슷한 시기의 중국 당(唐) 및 일본의 덴표[天平]시기 불교조각과 유사하여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행했던 공통된 국제양식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륵상의 한쪽 다리를 굽힌 자연스러운 자세와 화려한 장신구 표현은 인도 굽타시대 및 서역 보살상의 영향을 받은 중국 상들과 비교되고, 아미타상 하체의 Y자형 옷주름은 서역의 여래상에서 기원하여 당대에 중국화된 옷주름의 유형과 친연성이 있습니다. 다만, 넓적한 얼굴과 다소 경직성이 느껴지는 신체 표현은 같은 시기 중국이나 일본의 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한국적인 변형으로 이해됩니다.

감산사 상에서 보이는 국제적인 특징의 배경은 성덕왕대에 당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역사적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덕왕은 재위 36년(702~737) 동안 43회에 걸쳐 당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이는 양국의 총 사신 교환 횟수 중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김지성 자신도 당에 다녀왔습니다. 아미타상의 명문에서 언급된, 김지성에게 내려졌다는 상사봉어(尙舍奉御)라는 관직명은 그가 705년 당에 사신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김지성의 이와 같은 대외적인 활동은 그가 발원하여 만든 감산사 상의 국제적인 양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림1) 석조아미타여래입상, 719년, 경북 경주 외동읍 신계리 감산사지 출토, 상 높이 174cm, 국보 제81호



(그림2) 석조미륵보살입상, 719년, 경북 경주 외동읍 신계리 감산사지 출토, 상 높이 183cm, 국보 제82호

추사 김정희의 서화 세계

이수경 | 202호, 서화실II호 | 19:00~19:30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1786-1856)는 청나라와의 교류가 전반적으로 확산되었던 조선의 19세기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서화가로서, ‘추사체秋史體’라는 독특한 서체로 유명합니다. 괴이하다고 생각되는 ‘추사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명작 중 하나가 예서체隸書體의 큰 글씨로 쓴 <잔서완석루 殘暑頑石樓>입니다.

‘잔서완석루 殘暑頑石樓’는 ‘남은 글씨와 깨진 빗돌이 있는 누각’이라는 의미이다. 글자 하나하나를 풀어서 설명하면, ‘잔殘’은 깨지고 남아 있는 부스러기를 뜻하고 ‘서書’는 글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잔서殘書’는 세월이 흘러 깨지고 뭉그러져 겨우 희미하게 남아 있는 몇 글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완頑’은 거칠고 세련되지 못하다는 뜻이므로, ‘완석頑石’은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돌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깨지고 부서져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돌을 의미합니다.

‘잔殘’과 ‘완頑’, ‘서書’와 ‘석石’의 대비를 이루는 이 문구는 김정희 서권기書卷氣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서권기란 독서를 많이 하여 가슴속에 온축된 기운이 글씨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글씨를 쓰는 사람이 만들어낸 문구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김정희 글씨가 높이 평가받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새로운 문구를 만들어내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모아 새롭게 문구를 만들어내는 능력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파격과 균형미를 갖춘 추사체의 조형미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가로로 긴 작품 형태에 맞게 다섯 글자의 가로획이 정갈하면서도 리듬감 있게 서로 맞추어져 있으며, ‘殘’, ‘書’, ‘石’의 사선 획은 힘이 넘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내려 그어져 있어서 단정함에 파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글자인 ‘樓’의 ‘木’ 세로획은 굵게 내려 그어져서 작품을 힘 있게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림 7 김정희가 쓴 잔서완석루 殘暑頑石樓, 19세기, 31.8×137.8cm, 2018년 손창근 기증

- 고려나전향상의 제작기법 -

박영만 | 기획전시실 | 19:00~19:30

고려나전향상은 고려시대 분묘에서 출토된 고려나전칠기입니다. 출토당시 칠층 표면이 심하게 갈라져 매우 상태가 좋지 않아 표면의 문양을 관찰하기가 쉽지않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사람에 의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12장의 모사도가 발견되어 그 형태나 문양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칠기 안에는 향이 들어 있어서 ‘고려나전향상’ 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고려나전향상은 삼나무의 정목 판을 이용하여 만든 백골에 비단을 피복하고 골분과 생칠을 섞어 골회를 바르고 2-3회에 걸쳐 옷칠을 한 목심저피칠기(木心苧被漆器)입니다. 최대길이 10mm를 넘지 않고 두께가 0.3mm 내외의 나전을 정교하게 오려 붙였고 골분과 생칠을 섞어 바탕색을 고풍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분을 이용하여 회화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아름다움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고려나전향상은 고려시대 나전칠기의 화려함과 정교한 기술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국보급 문화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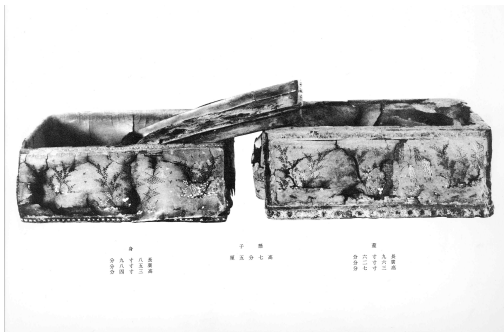


그림 8. 1929년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고려나전향상



그림 9. 일제 강점기에 그려진 추정 모사도



그림 10. 고려나전향상의 일부 세부분양



그림 11 칠층 밑에 비단의 모습